



2016년 7월 26일, 대한민국 인천광역시 - UNISDR은 대한민국의 국민안전처 및 인천광역시와 재난위험도 경감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지원하기 위한 5년 간의 1000만 달러 규모의 협약을 맺었다.

UNISDR은 대한민국의 국민안전처 및 인천광역시와 재난위험도 경감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지원하기 위한 5년 간 1000만 달러 규모의 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대한 서명에 때맞추어 UNISDR의 책임자인 Kirsi Madi가 인천을 방문했다. 그녀는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이것은 국제적 협력의 가장 좋은 예입니다. 한국 정부의 UNISDR ONEA-GETI의 유지와 이를 위한 지원은 이 지역은 물론 전 세계로 재난위험도 경감의 문화를 확산하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처음 5년 동안 인천에 위치한 UNISDR ONEA-GETI는 3,500명의 시장들과 민방위, 계획, 환경, 보건, 그리고 교육에 대한 세계 여러 국가로부터 온 정부부처의 대표자들에게 이 프로그램을 통해 혜택을 제공하였다.

“이 국가와 지역의 지도자들이 한국에서 재난위험도 관리에 대한 향상된 지식을 갖고 귀국함으로써 세계를 더 안전한 곳으로 만드는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기관들은 위험도 경감에 실패하여 재난에 영향을 받는 경우 재난위험도 경감을 위한 샌다이강령이 국가적 그리고 지역적 차원에서 시행될 수 있는지 이에 대한 이해를 확산시키는 원동력을 제공합니다.”라고 Madi 씨가 말했습니다.

“샌다이강령이 채택되었을 때, 국가적 그리고 지역적 차원의 지속적 발전을 우선순위로 만들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샌다이강령로 하여금 국가적 그리고 지역적 차원의 재난위험도 경감 전략을 갖고 있는 국가의 수가 상당히 증가하였을 때 재난으로 인한 손실을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지원은 이것을 현실로 만드는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15년 간의 샌다이강령은 2015년 3월 일본의 샌다이시에서 개최된 재난위험도 경감에 대한 제3차 유엔 세계총회에서 채택되었다. 그것은 2030년까지 인재와 자연재해로 인한 전세계적인 재난 손실을 상당히

감소시키고자 하는 명확한 목표를 설립하였고,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와 기후변화에 대한 파리조약과 같은 다른 글로벌 협약과 연계하였다.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에 위치한 국민안전처에서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이 정부를 대표하여 7월 20일 서명을 하였고, 또한 7월 21일 인천광역시 청사에서 유정복 시장도 서명을 했다. 재난위험도 경감 관련 사무총장의 특별 대표자인 Robert Glasser가 UNISDR을 대표하여 그의 기관본부에서 사전에 서명을 완료한 후, Madi에 의해서 대한민국에 협약서가 전달되었다.